https://doi.org/10.5392/JKCA.2018.18.02.583

로맨스 드라마 시청이 결혼에 대한 환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중국의 로맨스 드라마 시청 비교 -

The Effect of Television Romance Drama on Viewers' Fantasy of Idealistic Marriage

박영순, 나은경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Ying-Shun Piao(amberpiao@gmail.com), Eun-Kyung Na(eunniena@kookmin.ac.kr)

요약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수용자의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로맨스 드라마 시청에 따라 수용자의 결혼에서 경제문제 중요성 인식, 일상 만족도, 이성 만족도, 첫눈에 반하는 태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경우 적게 보는 경우에 비해, 결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 만족도는 높으며 첫눈에 반하는 태도를 중요시하고 결혼에 대한 환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드라마 시청 시 현실감 인식의 차이는 로맨스 드라마 시청의 이러한 결혼관 계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경우 결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 관계에 만족도가 더 큰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 시청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경우 일상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오히려 중국 드라마 시청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 중심어 : | 로맨스 드라마 | 결혼 환상 | 문화계발 | 현실감 |

Abstract

Increasing rate of late or deferred marriage in our society may have been inferred from alleged contribution of media use on people's idealistic expectations about marriag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Chinese romance drama viewing and various sub-concepts of idealistic fantasy about marriage. Results from survey analysis indicate that although romance drama viewing ha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i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various aspects of idealistic marriage fantasy (i.e., less materialism in marriage, more belief in love at first sight, and more unrealistic expectations on marriage). Further, differential cultivation effects of Korea and Chinese romance dramas were discussed.

■ keyword : | Romance Drama | Marriage Fantasy | Cultivation | Perceived Realism |

I. 서 론

1. 비혼/미혼율의 증가와 결혼에 대한 환상

최근 몇 년간 비혼/미혼 및 만혼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전세계적인 사회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들 수 있다[1]. 2012년

접수일자 : 2018년 01월 05일
수정일자 : 2018년 01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31일
교신저자 : 나은경, e-mail : eunniena@kookmin.ac.kr

도 중국의 2-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년대 출생이 6.6%, 80년대 출생이 69.2%, 70년대 출생이 17.3%이었으며, 응답자 중 45.3%가 비혼/미혼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2]. 한국의 경우도 서울 지역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4세로 나타났다[3]. '통계로 본 서울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따르면 서울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93년 25.7세였던 것이 20년 후인 2014년에 30.4세로 4.7세 높아졌다. 2014년에 결혼하는 여성들의 나이 중 25-29세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0-34세도 37.9%로 나타나 20대 혼인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사람들의 심리와 결혼에 관한 기존 문헌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했다[1]. 예컨대, 어린 시절 구전으로 듣는 옛날이야기나 동화에서부터 책, 드라마, 영화 등의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은 많은 경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가 주요 소재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에서 로맨스에 관한 메시지를 매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소비하고 있다. 로맨스는 소설책이 다루는 주요 주제이고 영화 장르로서도 존재하고 수많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심 소재이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낭만적인 이야기들은 실제 경험을 하기 전의 아이들에게도 사랑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전형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중매체에 편재하는 로맨스는 낭만적인 이상향을 그려내는 문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연애하고 사랑하는 행위의 구조에 침투했다고 주장한다[4]. 예컨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연인들은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프로포즈를 한다. 연인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 대해 미디어가 그려내는 이미지는 대체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숨김없이 얘기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연애와 사랑의 이미지가 수용자의 실제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내용은 대부분은 연애와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녀 관계는 상당수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적으로 로맨틱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5]. 텔레비전 드라마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통한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묘사와 불륜이나 외도를 미화시키는 내용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6]. 또한 물질적인 문제의 인식 및 경제상황 만족은 사회비교 측면에서도 결혼과 연애에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4]. 이러한 비현실적인 드라마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분석과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즉 연애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기대는 결국 자신의 연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자기 삶에 대한 만족 및 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의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14]. 한국 드라마 <파리의 연인>, <플하우스>, <발리에서 생긴 일>, <황태자의 첫사랑> 등은 모두 평범한 여자가 재벌 2세급의 남자를 만나 신분이 상승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로맨스 드라마의 낭만성에도 질적인 변화가 발견된다. 이제는 재벌 2세나 3세를 넘어서(예: <상속자들>), 더 이상 현실세계에 함께 살고 있는 보통사람이 아닌 초능력자와의 사랑을 꿈꾼다든지(예: <별에서 온 그대>), 수천 년 전 인물이 부활하여 죽지 않는 영혼으로 나타나 사랑을 나눈다든지(예: <도깨비>), 와 같은 식으로, 낭만적인 사랑의 이상향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세상으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측컨대, 현실세계 자체의 변화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그에 따른 사랑과 결혼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조건을 반영한 탓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드라마의 사랑과 연애, 결혼은 해를 거듭할수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기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트렌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텔레비전이 연애와 결혼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데 기존 연구의 합의가 이루어져온 바[5][8-11], 그렇다면 이러한 묘사가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연애와 결혼을 비롯한 대인관계 및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드라마는 보다 현실적인 내용, 심지어 로맨스라 하더라도 한국 드라마보다

현실적이라는 기존 연구에 따라[12][13] 국가별 로맨스 드라마의 결혼관 계발 효과의 차이도 알아볼 것이다.

2. 로맨스 드라마의 결혼 환상 계발 효과

문화계발 이론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중시청자일수록 텔레비전이 제시하는 대로 세상을 지각한다는 것이다[19]. 텔레비전의 이러한 계발효과는 비단 폭력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머릿속의 그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미디어의 다양한 형태, 특히 그러한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20].

결혼생활을 묘사함에 있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은 축소하고 대신, 한눈에 반하는 사랑,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밀함, 육체적 만족, 영원한 행복, 첫눈에 반하는 사랑 등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낭만적 사랑과 결혼에 대한 실현불가능한 환상을 심어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1][8]. 또한 미디어가 낭만적 사랑의 실천방식으로 로맨틱한 데이트, 열정적 사랑, 기념일 이벤트, 등의 사치스럽고 제한적인 이미지를 되풀이해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낭만적 사랑의 고정된 이미지를 주입한다는 것이다[5].

텔레비전의 사랑에 대한 빈번하고도 낭만적인 묘사는 시청자들의 이성 간의 관계 및 결혼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사랑과 결혼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으로 이상화된 모습을 그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는 자신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과 같은 실제 삶의 태도에 특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 학술적인 연구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개별적인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에 따른 영향을 질적인 방법으로 서술한 경향이 있었기에([5][8-11] 등), 기존 연구들이 추정적으로 밝혀온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히 로맨스 드라마의 시청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계발이론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의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했던 연구들도 있었는데, 텔레비전 시청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관계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1].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시청자들 중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토크쇼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특정 장르에 더 노출된 시청자들이 에로스 사랑 스타일을 더 지지하고 친밀성에 대한 기대, 결혼할 의지와 결혼에 대해 환상적인 상상을 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사랑에 대한 텔레비전의 지나친 미화로 인해 특정 프로그램의 중시청자들은 사랑, 연애와 결혼에 대해 환상적이고 완벽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통의 연구 흐름에서, 한국 드라마의 낭만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6]. 이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세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신데렐라 드라마 시청량에 따른 낭만적 결혼관 계발효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신데렐라 드라마의 중시청자들이 경시청자들에 비해 낭만적인 결혼관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신데렐라 드라마를 많이 볼수록 낭만적 결혼관을 가지게 되므로, 전체 드라마 시청 총량이 높지 않더라도 신데렐라 드라마의 시청비율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낭만적인 결혼관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어, 신데렐라 드라마의 시청량이 낭만적 결혼관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연인 관계 혹은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4], 앞서의 연구와 비슷한 가설들이 검증되지 못하여 기존 연구와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 역시 문화계발 효과 이론에 근거하여 드라마 시청량이 많을수록 이상적인 낭만적 신념은 높을 것이라 가정하고, 드라마 내용이나 등장인물과의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드라마 내용의 현실성 인식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드라마 시청량은 낭만적 신념과 약하지만 부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드라마 시청량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과

현실성 인식에는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4].

서구 연구에서도 이렇게 모순된 연구결과가 발견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같은 사람과 결혼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높였으나 동시에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의문이 들게끔 했다는 모순된 결과를 얻은 한편[7], 최근의 연구들은 텔레비전 시청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 일방적으로 긍정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기대를 심어준다는 결과를 얻었다[1]. 이러한 결과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경험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로맨스 드라마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12]. 우선 중국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리고 중국 남성의 가부장제 의식은 한국 남성과 비슷하지만 현실생활에서 부담은 더 많다. 중국 여성의 삶의 질은 아직 한국 여성보다 낙후한 상태이나, 한국의 부부 갈등의 주요 요인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문제에서 비롯한다면 중국의 부부 갈등은 주로 맞벌이 현실생활에 대한 부적응에서 발생한다. 중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분류 기준은 한국과 차이가 있고, 특히 내용과 성격 측면에서 로맨스를 다루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더라도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에 기반해서 다루는 차이가 있다[13].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미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중국 로맨스 드라마와 한국 로맨스 드라마를 이용하는 것이 미혼 여성들의 결혼관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1: 로맨스 드라마 시청은 시청자의 낭만적 결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이 많을수록 결혼에 있어서 (1-1)경제적인 문제 중요도, (1-2)일상생활 만족도, (1-3)이성관계 만족도, (1-4)첫눈에 반하는 태도, (1-5) 결혼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2: 한국 로맨스 드라마와 중국 로맨스 드라마의 시청은 시청자의 낭만적 결혼관 계발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연구방법

1.1 표본 선정, 조사 방법 및 시기, 표본의 특성

이 연구는 한.중 로맨스 드라마 시청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5월 15일부터 29일의 2주간에 걸쳐 중국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63명의 응답 중 부실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429명의 설문이다. 응답자 표본의 특성은, 남자 124명(28.9%), 여자 305명(71.1%)이며, 연령별로는 17-20세 82명(19.1)%, 20대 초반 255명(59.1%), 20대 중반 92명(21.4%)으로 구성되었다.

1.2 측정 변인의 내용

1.2.1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

전통적인 문화계발 연구에서 중심변인으로 간주되는 시청량은 한국과 중국 로맨스 드라마 각각에 대해 최근 6개월 간 일주일 평균 시청 정도를 질문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한 두 항목 응답의 평균을 구했다(M=3.71, SD=1.61; r=.59, p<.001). 본 연구의 대상인 로맨스 드라마는 드라마의 형태 및 성격에 따른 장르 분류 중, 주간 단위 2회 방영 드라마, 미니시리즈, 멜로 및 트렌디 드라마로 한정하였다[12].

1.2.2 결혼에 대한 환상

가. 경제적 문제 중요도 인식

드라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자주 표현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치품, 화려한 돗, 멋진 레스토랑 등과 같은 물질적 소비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4][15]. 로맨스의 이상성과 낭만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제로 사용하는 소비의 이미지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제적 문제 중요도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돈과 좋은 집, 차, 옷을 갖는 것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인생에서의 중요한 성공의 지표라고 보지는 않는다(역코딩)"과 같은 6개 문항 각각에 대해 7점 척도로 답하게 하여 평균을 구했다(M=4.48, SD=.69, Cronbach's Alpha=.650).

나.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도 개념은 생활만족도와 유사개념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사람들의 복지 상태로 정의된다. 즉 생활의 만족은 현실의 객관적 측면과 생활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평가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복지는 물질적, 비물질적 성취와 주변 환경에 대한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포함한다[14]. “내가 가졌던 인생의 목표, 이상, 희망 등에 비추어 나는 현재 만족한다,” “내가 쏟은 노력들을 고려했을 때, 그간의 내 인생의 결과들에 대해 나는 만족한다.”와 같은 6개 문항 각각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로 답하게 하여 평균을 구했다(M=3.89, SD=1.29, Cronbach′s Alpha=.894).

다. 이성 관계 만족도

이성 관계는 계약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해 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혼 남녀 간의 교제이며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16]. “나는 우리의 이성 관계가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관계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역코딩),” “내 연인은 내가 바라는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다,” 등의 6개 문항 리커트 7점 척도 응답치의 평균을 구했다(M=4.59, SD=1.13, Cronbach′s Alpha=.772).

라. 첫눈에 반하는 태도

운명적이고 열정적이며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다[6].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반대해도 그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면 또다시 다른 사람과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면 그를 만나는 순간 알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6개 문항 각각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로 답하여 하여 평균을 구했다(M=3.77, SD=1.21; Cronbach′s Alpha=.753).

마. 결혼에 대한 환상

환상(fantasy)의 그리스 어원은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실 밖의 현실을 눈에 보이게, 즉 현실화시키는 것이 환상이다. 환상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가 초현실적인 일들을 다룬 이야기인 것이다[17].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녀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결혼생활을 묘사함에 있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축소하고 대산 한눈에 반하는 사랑,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밀함, 영원한 행복 등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낭만적 사랑과 결혼에 대한 환상이 형성될 수 있다[6]. “결혼을 잘하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난한 여성과 능력 있는 남성의 사랑은 낭만적이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은 하나일 것이다,”와 같은 6개 문항 각각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로 답하게 하여 평균을 구했다(M=4.60, SD=1.14; Cronbach′s Alpha=.737).

바. 드라마의 현실감 인식

로맨스 드라마의 현실감 인식(perceived reality)은 드라마의 내용을 얼마나 현실과 비슷하다고 느끼는가의 정도를 뜻한다[18]. “로맨스 드라마의 등장인물에게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가 나를 비롯한 내 주위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로맨스 드라마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로맨스 드라마의 내용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와 같은 6개 문항 각각에 대해 리커트형 7점 척도로 답하게 하여 평균을 구했다(M=4.01, SD=1.27, Cronbach′s Alpha=.880).

4. 연구결과

연구문제1: 로맨스 드라마 시청은 시청자의 낭만적 결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이 많을수록 결혼에 있어서 (1-1)경제적인 문제 중요도, (1-2)일상생활 만족도, (1-3)이성관계 만족도, (1-4)첫눈에 반하는 태도, (1-5)결혼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탐구에 앞서 문화계발이론에 따라 최근 주중 평균 7점 척도로 측정한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의 중앙값(=4.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이 시청한 중시청자 집단(N=152)과 이보다 적게 시청한 경시청자 집단(N=277)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문제1을 탐구하기 위해 낭만적 결혼관을 구성하는 종속변인들 각각에 대해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t-test를 실시했다[표 1].

표 1.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에 따른 결혼 환상 계발효과 t-test (N=429)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 구분 (N)	M (SD)	t-value (p)
경제적인 문제	경시청(277)	4.54(.69)	−2.36 (.019)*
	중시청(152)	4.37(.66)	
일상생활 만족도	경시청(277)	3.78(1.31)	2.59 (.010)**
	중시청(152)	4.11(1.22)	
이성관계 만족도	경시청(277)	4.54(1.11)	1.21 (.227)
	중시청(152)	4.68(1.16)	
첫눈에 반하는 태도	경시청(277)	3.66(1.24)	2.41 (.017)*
	중시청(152)	3.95(1.14)	
결혼 환상	경시청(277)	4.48(1.15)	2.91 (.004)**
	중시청(152)	4.82(1.09)	

*** $p < .001$ ** $p < .01$ * $p < .05$

연구문제1-1 분석 결과,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문제 중요도 인식은 경시청자 집단이 4.54(SD=.69), 중시청자 집단이 4.37(SD=.66)으로,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에 따라 경제적 문제 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6, p<.05). 즉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이 많을수록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는 경시청자 집단이 3.78(SD=1.31), 중시청자 집단이 4.11(SD=1.22)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59, p<.01). 즉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이 많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1-2).

이성관계 만족도는 경시청자 집단이 4.54(SD=1.11), 중시청자 집단이 4.68(SD=1.16)로, 로맨스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과 중시청자 집단의 이성관계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21, p=.227).(연구문제1-3).

연구문제1-4의 첫눈에 반하는 태도는 경시청자 집단이 3.66(SD=.075), 중시청자 집단이 3.95(SD=.093)로,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이 많을수록 결혼에 있어서 첫눈에 반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1, p<.05).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로맨스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이 4.48(SD=1.15), 중시청자 집단이 4.82(SD=1.09)로 나타나, 두 집단의 결혼에 대한 환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91, p<.01). 즉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환상이 유의미하게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1-5).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드라마의 현실감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는데, 본문의 결과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로맨스 드라마 시청의 결혼 환상 계발효과에 있어서 매개 혹은 조절변인으로서의 드라마 현실감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문제2: 한국 로맨스 드라마와 중국 로맨스 드라마의 시청은 시청자의 낭만적 결혼관 계발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로맨스 드라마의 시청량 뿐 아니라 로맨스 드라마의 속성에 따라 중국 대학생의 결혼관 계발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중 드라마 각각의 시청량에 따라 낭만적 결혼관의 구성요소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한/중 국가별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에 따른 결혼관 계발의 차이 t-test (N=429)

	한/중 드라마	로맨스드라마 시청량 구분 (N)	M (SD)	t-value (p)
경제적인 문제	한국 드라마	경시청(259)	4.48 (.68)	−.238 (.813)
		중시청(170)	4.46 (.70)	
	중국 드라마	경시청(208)	4.58 (.65)	−3.305 (.001)***
		중시청(221)	4.37 (.67)	
일상생활 만족도	한국 드라마	경시청(259)	3.75 (1.20)	2.82 (.005)**
		중시청(170)	4.11 (1.20)	
	중국 드라마	경시청(208)	3.83 (1.31)	1.01 (.309)
		중시청(221)	3.95 (1.26)	
이성관계 만족도	한국 드라마	경시청(259)	4.60 (1.11)	−.376 (.707)
		중시청(170)	4.56 (1.13)	
	중국 드라마	경시청(208)	3.83 (1.35)	2.01 (.045)*
		중시청(221)	3.95 (1.31)	
첫눈에 반하는 태도	한국 드라마	경시청(259)	3.68 (1.22)	1.77 (.076)
		중시청(170)	3.89 (1.18)	
	중국 드라마	경시청(208)	3.65 (1.17)	1.76 (.078)
		중시청(221)	3.86 (1.24)	
결혼 환상	한국 드라마	경시청(259)	4.50 (1.16)	2.32 (.031)*
		중시청(170)	4.79 (1.04)	
	중국 드라마	경시청(208)	4.46 (1.11)	2.47 (.020)*
		중시청(221)	4.63 (1.08)	

*** $p < .001$ ** $p < .01$ * $p < .05$

분석 결과, 한국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에 따라 중국 대학생의 결혼에서 경제적인 문제 중요도 인식은 경시청자 집단이 M=4.48(SD=.68), 중시청자 집단이 M=4.46(SD=.70)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난 반면(t=-.238, p=.813), 중국 로맨스 드라마 시청량에 따라서는 경시청자 집단이 4.58(SD=.65), 중시청자 집단이 4.37(SD=.67)로(t=-3.305, p<.001), 중국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경제적인 문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에 관해서는 한국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이 M=3.75(SD1.20), 중시청자 집단이 M=4.11(SD=1.20)로, 한국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일상생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2, p<.01). 반면에 중국 로맨스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은 3.83, 중시청자 집단은 3.95로, 드라마 시청량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성관계 만족도에 관해서는 한국 로맨스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이 4.60, 중시청자 집단이 4.56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t=-.376, p=.707), 중국 로맨스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은 M=3.83(SD=1.35), 중시청자 집단은 M=3.95(SD=1.31)로, 중국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시청할수록 적게 시청한 경우보다 이성관계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1, p<.05).

첫눈에 반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로맨스 드라마 각각의 시청량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표 2].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한국과 중국의 로맨스 드라마 각각의 시청량이 많을수록 적은 경우에 비해 모두 동일하게 결혼 환상이 높아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로맨스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의 결혼에 대한 환상은 M=4.50(SD=1.16), 중시청자 집단은 M=4.79(SD=1.04)로(t=2.32, p<.05), 중국 로맨스 드라마 경시청자 집단은 M=4.46(SD=1.11), 중시청자 집단은 M=4.63(SD=1.08)로 나타났다(t=2.47, p<.05).

5. 결론 및 논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수용자의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로맨스 드라마 시청에 따라 수용자의 결혼에서 경제문제 중요성 인식, 일상 만족도, 이성 만족도, 첫눈에 반하는 태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경우 적게 보는 경우에 비해, 결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 만족도는 높으며 첫눈에 반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환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드라마 시청시 현실감 인식의 차이는 로맨스 드라마 시청의 이러한 결혼관 계발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로맨스 드라마 시청에 관한 한, 드라마 내용의 현실감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최근 한국 로맨스 드라마에서 현실의 재벌3세 이야기보다 전생이나 귀신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인기를 끄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와 중국의 로맨스 드라마는 국가별 드라마의 내용상 질적인 측면의 차이로 인해 드라마 시청 결과 수용자의 이러한 낭만적 결혼관 계발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경향을 보였다.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경우 적게 보는 경우에 비해 결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 관계에 더 만족도가 큰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 시청에 따라서는 경제문제 인식과 이성 만족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일상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경우 적게 보는 경우에 비해 현실에 더 만족도가 높았고 오히려 중국 드라마 시청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첫눈에 반하는 태도는 예측가능하게도 국가별 드라마 시청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았던 바, 국적과 문화를 불문하고 어떤 로맨스 드라마든 많이 시청할수록 운명적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텔레비전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낭만적 결혼관 계발효과의 차이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12][13]. 중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분류 기준도 한국과 차이가 있고 특히 내용면에서 로맨스를 다루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더라도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에 기반해서 다루는 차이가 있다[13].

따라서 물질주의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는 한국 드라마에 비해 중국 드라마 시청은 경제적인 문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 동떨어진 내용을 많이 다루는 한국 드라마에 비해 중국 드라마를 시청할수록 현실의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에, 지극히 현실적인 중국 드라마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신데렐라형 로맨스를 많이 다루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수록,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사회비교가 일어나기보다는 시청 후 대리만족을 통해 일상생활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해석해보면 흥미롭게도 로맨스 드라마 시청으로 인해 사회비교 심리보다는 대리만족 및 연애 학습의 심리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맨스 드라마 시청에 따른 결혼에 대한 환상이 시청 후 현실의 이성관계 만족과 일상생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게도 로맨스 드라마 시청이 많을수록 결혼 환상이 더 높은 것은 분명한데[1][5][6][8-11], 낭만적 결혼관, 즉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기반 및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대한 향후의 연구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는 변인 자체를 경험적으로 다루는 데 많은 주의를 요한다. 결혼 환상 개념은 지극히 다차원적인 개념이 될 수 있어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질적인 연구를 주로 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양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자칫 상충되는 하위차원으로 분석하는 경우 결혼 환상의 본래 개념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개념의 이론적 및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국민대학교 2016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참 고 문 헌

[1] C. Segrin and R. L. Nabi, "Does television viewing cultivate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marriag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2, No.2, pp.247-263, 2002.

[2] 陳洋欽, 中國深圳地區未婚女性調查研究, 騰訊网新聞報道, 2012.

[3] 서울통계, "통계로 본 서울 남녀의 결혼과 출산," 서울통계 86호, 2014.

[4] 진보래, 지혜원, "드라마 시청은 낭만적 환상을 조장하는가?: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5호, pp.141-162, 2012.

[5] 홍지아, "TV가 제시하는 사랑할/받을 자격과 한국사회 20대 여성들이 이를 소비하는 방식: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6권, 제5호, pp.307-342, 2012.

[6] 윤혜성, *신데렐라 드라마가 미혼 여성들의 낭만적 결혼관 계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N. Signorielli and M. Morgan, "Cultivation analysis: Conceptualization and methology," in N. Signorielli and M. Morgan (Eds.), Cultivation Analysis, 1989.

[8] 김수아, 이소연, "결혼 의례의 기호학적 분석: 낭만적 사랑의 신화와 성 역할 이데올로기,"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8호, pp.43-76, 2005.

[9] 윤석진, "TV 드라마의 현실성 확보 방식 고찰 - KBS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21집, pp.317-355, 2005.

[10] 홍지아, "드라마에 나타난 낭만적 동성애의 재현과 사랑 지상주의적 서사: <커피프린스 1호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1호, pp.162-200, 2008.

[11] 한규섭, *TV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관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JTBC <우리가 결혼 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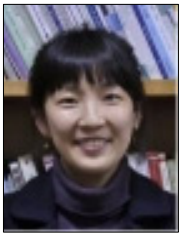
[12] 하일단, *한·중 가정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3] 문성철, 정은정, “중국 드라마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9년 중국 인기 드라마의 장르적,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pp.107-140, 2012.
[14] 금희조,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시청이 등장인물과의 사회적 비교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결혼 및 연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pp.98-137, 2007.
[15] 이주현, 김은미, “텔레비전 시청이 연애에서의 소비 및 소비수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6호, pp.196-221, 2012.
[16]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17] 선주원, “한국 환상 동화에서의 환상성 구현 방식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0호, pp.209-238, 2011.
[18] W. J. Potter, “Perceived reality and the cul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30, pp.159-174, 1986.
[19] G. Gerbner, L. Gross, M. Morgan, and N. Signorielli,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0, pp.10-29, 1980.
[20] 김미라,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데이트와 이성 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52권, 제2호, pp.353-377, 2008.

저 자 소 개

박 영 순(Ying-Shun Piao) 정회원

- 2016년 2월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Masters Degree

나 은 경(Eun-Kyung Na)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학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석사)
- 2006년 8월 : University of Pennsylvania(Ph.D.)
- 2006년 8월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 2010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심리학, 뉴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정치커뮤니케이션